

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현황

산업기술리서치센터 코어소재팀
장혜주 (heyjude@kdb.co.kr)

- ◆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 심화로 원가 경쟁력이 낮은 유럽·동북아 지역 설비를 중심으로 노후 생산설비 폐쇄 및 생산능력 감축 진행 중
- ◆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설비 통합, 고부가제품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정부도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세제·금융·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

□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이 낮은 설비 중심으로 구조조정 중

- 글로벌 공급과잉 확대로 설비별 경쟁력 격차가 부각되며, 유럽 및 동북아 NCC*는 구조적 마진 압박에 직면

* Naphtha Cracking Center : 원유 기반 나프타를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

- 중동 및 북미는 ECC* 비중이 크며, 원료인 에탄을 자국에서 저가로 조달할 수 있는 등 원가 우위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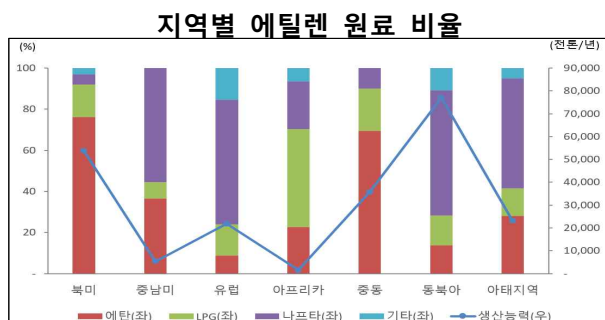
* Ethane Cracking Center : 천연가스 기반 에탄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

- 반면, 노후 NCC가 많은 유럽 및 동북아는 나프타 수입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존재하며 ECC 대비 비싼 원료비, 낮은 에틸렌 수출 등으로 인해 에틸렌 제조원가가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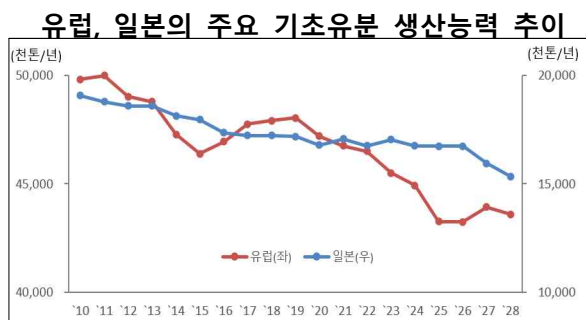
* 다만, NCC는 ECC 대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 존재

- 유럽 및 동북아 NCC 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유분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추세

- 유럽에서 '22년부터 '28년 사이 폐쇄했거나 폐쇄 예정인 공장들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530만톤/년으로, 이는 유럽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의 약 22%
- 일본의 NCC는 현재 12기이며 '30년까지 8기로 축소될 계획으로, 에틸렌 생산능력이 약 195만톤/년 감소 예상



자료 : ICIS



주 : 에틸렌, 프로필렌, 파라자일렌의 합
자료 : ICIS

□ 국내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및 고부가제품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재편 본격 추진 중

-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「先자구노력 - 後정부지원」 방식의 사업재편 진행 중
 -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, 여수, 울산은 비주력 자산 매각, 중복·노후 NCC 통폐합,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사업 전환 등 자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중

3대 석유화학단지 사업재편 진행 현황

구 분	단 계	주 요 내 용	비 고
대산	사업재편 승인	■ (사업구조)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분할 후, HD현대케미칼과 합병 ■ (재편내용) 롯데케미칼 NCC 가동중단, 양사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중 중복·적자설비 가동중단	'26.6월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롯데대산석화 출범
여수	사업재편 계획안 제출	■ (사업구조)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NCC를 분할 하여 여천NCC와 통합하고, 신설법인 설립 ■ (재편내용) 주주사의 경쟁력 있는 주력사업을 신설법인에 통합하고 의료용 LDP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	
울산	사업재편 계획안 미제출	-	

주 : '26.5월 기준
자료 : 산업통상부

- 정부는 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였으며, 맞춤형 금융·제도 등 패키지로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할 계획

석유화학 특별법 주요 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
세제 지원	■ 사업재편 위한 합병, 분할, 연구개발 등에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
재정 지원	■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
규제 특례	■ 생산시설 증설, 공정 개선, 설비 폐쇄 시 절차 간소화 ■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 ■ 신기술, 신공정 전환에 필요한 기술 검증 등에 대한 신속 조치

자료 :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- 석유화학 사업재편 성공시, 과잉설비 감축 및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산업 체질 개선 기대
 - 업계가 설정한 에틸렌 생산능력 감축 목표량은 270~370만톤/년(국내 생산 능력의 약 21~28%)이며, 목표 달성시 공급 부담 완화* 가능할 전망
 - * '25년 기준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1,300만톤이며, 내수는 약 823만톤, 수출은 약 205만톤
 - 고부가·스페셜티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여 범용제품 의존도를 낮추고,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기대